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7일 (음력 12월 12일) 목요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 본격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호타이어는 16일 광주시 청사 3층 비즈니스룸에서 미래에셋대우와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및 공장이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부사장), 조삼수 대표지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임직원 10명과 봉원석 미래에셋대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협약식에 함께했다.

'금호타이어-미래에셋대우' 업무제휴 협약 체결

송정역 인근 효율적 활용 '도시계획 변경' 용역 돌입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협약을 통해 광주 송정역 인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획 검토의 시작을 알렸다.

양사는 광주공장 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현 광주공장 부지 토지이용 계획안이 확정되면 이후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광주공장 부지 개발로 얻는 모든 수익은 신(新)공장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신 공장 청사진도 제시됐다.

친환경 설비로 구축될 신 공장은 첨단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생산규모와 고용확대를 통해 다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 공장에 관한 부분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공유를 통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전대진 대표이사(부사장)는 인사발령을 통해 "공장 이전은 금호타이어의 생존과 미래 존속이 걸린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앞으로 노조, 미래에셋대우, 광주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원석 미래에셋대우 부사장은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대우의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삼수 대표지회장은 "금호타이어 발전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미래에셋대우는 업무제휴 협약식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광주시' 3년간 '공동 실천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노사)-광주시 지속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의 의기투합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후지경영과 고용·투자 확대를 이루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 광주' 실현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김형철 장흥군변영회장 취임 제15대 장흥군변영회장 이·취임식이 16일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임 김형철 회장은 장흥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영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남 16개 시·군 농업월급제 시행...월 30만~200만원

전남 16개 시군에서 농업월급제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을 통해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 나주시 등 16개 시군에서는 해당 농협과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 후 관할 농협

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벼 양파 마늘 포도 감 배 사과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양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

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 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시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및 사업량 등을 확정했다.

지원 이자율은 시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이자 발생에 따른 도·시군 부담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85%다. 지원 규모는 최대 6천 농가다.

시군에 농업인 월급제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목포시, 여주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라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정환 기자



청신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협상절차 재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광주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에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울 강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최근 정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림산업이전도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사 상생도시 광주' 선언문을 발표하고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전망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사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이용섭



이해찬



이용섭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